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May 2016 Vol. 116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픽사 스토리
Story of Pixar

CONTENTS

May 2016 Vol. 116

PREVIEW

48 Movies

데드풀, 드레스메이커 외
Deadpool, The Dressmaker and more

56 View Finder

운명을 바꾸는 통화 기록 <더 폰>
A Life-Changing Call From The Phone

58 Short Features

원초적 자연, 플로리다 - 1부, 악어의 습지, 세계에 부는
복고 열풍 외
Wild Florida—Gator Country, The Retro
Revolution and more

62 Music

원 다이렉션, 마이클 볼튼 외
One Direction, Michael Bolton and more

66 Stardom

누구도 거절 못할 라이언 레이놀즈
Irresistible Ryan Reynolds

마음 끌리는 대로 온갖 캐릭터를 탐험하는 라이언 레이놀즈는
배우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The comic actor has taken on all sorts of characters, and
he reminds us of the essence and fundamentals of acting.

70 Director's Cut

이탈리아 영화계의 현재, 파올로 소렌티노
Now in Italian Cinema: Paolo Sorrentino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은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과 같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화두로 삼아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Paolo Sorrentino seeks to answer some of our most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death, youth and aging.

74 Music On

저스틴 비버의 완벽한 전환점
A Perfect Turning Point for Justin Bieber
뜻뜻하고 재기발랄했던 10대를 보낸 저스틴 비버는 앨범을 통해
20대를 사색하는 변화의 문을 열었다.
Now in his twenties, Justin Bieber has returned with a
new album that leaves his image as a teenager behind.

BEYOND DISCOVERY

80 Zoom In

여성의 정체성, 말실에서 찬란히 빛나다
The Identity as a Woman Shines in a Cell
루이즈 부르주아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지금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에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가인 부르주아의 넓고
깊은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Six years have passed since her death, and the Guggenheim
Museum Bilbao in Spain is holding a large-scale exhibition
that surveys the art world of Louise Bourgeois.

84 Incredible Truths About Wine

토카이 와인 르네상스의 기수, 디스노코
Disznókő: Tokaji Wine at Its Finest
오늘날 토카이 와인의 전성기를 주도하고 있는 디스노코는 명품
와인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각고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향가리를 대표하는 명가로 성장했다.
Leading the heyday of Tokaji wines, the Disznókő winery has
grown into a famous Hungarian wine company by investing
and innovating the quality of Tokaji wine.

88 As Special As It Gets

회귀를 불러일으키는 신화, 프란세스크 호텔 싱글라로
A Spot to Revisit,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한번 가보면 언제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중심에 그와 꼭 닮은 호텔이 있다. 마요르카 귀족이 머물던 지역을
어느날 예술적인 공간으로 바꾼 산토 프란세스크 호텔 싱글라로다.
Mallorca is a place that begs to be revisited and at its
center is a hotel that does the same. Meet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a cozy and artistic renovated mansion.

92 Horoscope

별들이 귀띔해준 당신의 운명
Peer into the Future and See What the
Stars Say



COVER
픽사 스토리
Story of Pixar
Illustrated by Young-soo

IN-FLIGHT PROGRAM GUIDE

가내 프로그램 가이드

가내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In-flight Program Guide.

Sky Program 스카이 프로그램

98 영화 Movies

101 단편물 · 뉴스 Short Features · News

104 CD 음악 CD Albums

Red Program 레드 프로그램

106 영화 · 단편물 Movies · Short Features

107 채널 음악 Channel Music

110 좌석 작동법 How to Use the Passenger Seat

112 가내 서비스 순서 In-flight Service Plan

e-book



<http://beyond.koreanair.com>

<비온드>의 기사는 인터넷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ticles from this issue of *beyond* are
available online.



BEYOND DISCOVERY 78



BEYOND DISCOVERY

낮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

낮선 세상은 기쁨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즐거움입니다. 호기심으로 살립니다. 체험은 짜릿합니다. <비온드>가 소개하는 색다른 세상, 그 너머로 성큼 들어오십시오.

The Joy of Discovery

Learning about an unfamiliar world can be exhilarating. The exploration of the unknown and the desire to seek out new experiences, places and cultures occupy the heart of travel. So come and explore the magical world that *beyond* has to show you. Enjoy the journey!

AS SPECIAL AS IT G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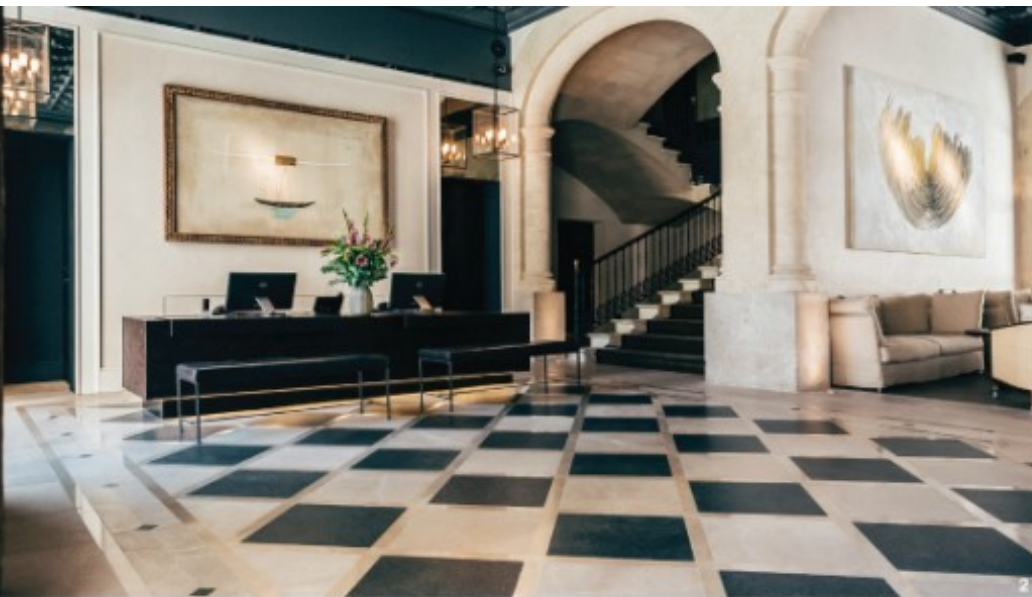
호텔 연재 기획 85 회귀를 불러일으키는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귤라르

A SPOT TO REVISIT,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한번 가보면 언제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 마요르카 섬의 중심에 그와 꼭 닮은 호텔이 있다. 마요르카 귀족이 머물던 저택을 아늑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바꾼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귤라르다.

The Spanish island of Mallorca is a place that begs to be revisited and at its center is a hotel that does very much the same. Meet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a cozy and artistic renovation of a mansion once belonging to Mallorcan aristocrats.

by 박보람(팔마데마요르카) Park Boram (Palma de Mallorca)



“마요르카에 처음 오신 건가요?” 무언가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질문이다. 택시 기사든 식당 주인이든 호텔 리셉션의 직원이든 여지없이 마요르카에 처음 방문한 것이냐고 묻는다. 심지어 건축물이나 바다를 보며 감탄을 해도 누군가 장난스럽게 묻는다. “마요르카 처음 와봤어?” 그만큼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의 마요르카 섬은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오고 마는 사람은 없는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다. 섬으로 떠나기 전에 만난 한 영국인은 목적지가 마요르카한 말을 듣자마자 가장 적당한 여행 기간인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줄줄이 읊었다. 첫날엔 해변을 즐기고, 둘째 날엔 유적지를 탐방하고, 셋째 날엔 쇼핑을 하라는 것이다. 매년 엄마와 함께 섬을 찾는다는 그녀의 말대로 마요르카는 여행객들에게 완벽히 최적화된 섬이다.

섬의 변화한 중심지 팔마데마요르카는 넓은 모래 해변을 끼고, 바로 곁에 고운 빛깔의 지중해를 두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영과 해양 스포츠, 일광욕을 즐기고,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며 한가로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 젊은 연인이든 노년 부부든 어린아이를 둔 가족 단위로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는 상연 호텔이 많아도 비어 있는 객실은 드물다. 곧 마요르카의 숙박 시설은 1년 내내 성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토니 가우디의 손길이 닿은 팔마데마요르카의 상징, 팔마 대성당 부근에는 궁궐한 마요르카의 명소가 웅기종기 모여 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호텔들이야말로 노년자 위외의 숙소다. 그리고 그 중심에 13세기에 지어진 바실리카 데 산트 프란세스크와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글라르가 있다. 프란세스크 광장의 넓은 공간에 나란히 이웃한 두 건물은 본관과 별관처럼 하나로 아우러진다. 1880년에 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호텔 건물은 원래 마요르카의 귀족 알로마르 페메나가 가문의 저택이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축물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여 리모델

“Is this your first time in Mallorca?” A question is always answered with another. Whether I'm talking to a taxi driver, a restaurant owner or a hotel receptionist, everyone inquires if this is my first visit to Mallorca. As I marvel at the architecture or the blue sea, someone is always there to ask: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Located among the Balearic Islands, Mallorca is a holiday destination that some may have never visited, but those who visit never

1 인물에서 본 호텔 외관 2 로비 3 객실 내부 4 인물
1 Exterior of the hotel lobby 2 Lobby 3 Interior of a room 4 Courtyard



come just once. Before I embarked toward the island, I met a British tourist who detailed a rundown of things to do during my three-day stay. I was told to enjoy the beaches on the first day, historical monuments on the second and shopping on the third. As an yearly visitor to the island with her mother, she was correct in her opinion that Mallorca is an ideal location for tourists.

The bustling capital of Palma de Mallorca, or simply Palma, sits on a wide stretch of sandy beach, a stone's throw away from the blue hues of the Mediterranean Sea. People can be seen swimming, playing beach sports, sunbathing and wheeling around on skates or bicycles. Although host to numerous hotels, most are occupied with tourists, including couples and families. Vacancies are rare here, and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ccommodations in Mallorca are fully booked year-round.

Restored at the hands of architect Antoni Gaudí, the Palma Cathedral symbolizes the capital and its nearby tourist destinations. Standing at the heart of Palma are Basilica de Sant Francesc and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Adjacent to each other in the charming Plaça de Sant Francesc square, Basilica de Sant Francesc and the hotel belong to the same complex. Built in 1880, the hotel's building was designed with a neoclassical aesthetic and served as the mansion of the aristocratic Alomar Femenia family. Preserving the building's timeless beauty,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was



링을 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자연스럽게 호텔의 이름을 바실리카 데 산트 프란체스코에서 가져왔고, 호텔을 상징하는 고유한 엠블럼 또한 십자가에서 영감을 얻어 여러 개의 십자가를 겹친 형태다.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호텔 내부는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 대체로 유럽의 건물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에 비하면 내부가 깊고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것처럼, 호텔 내부는 가운데가 네모난 모양으로 뚫려 있다. 한국식으로는 'ㄱ'자의 한옥 모양을 생각하면 된다. 넓은 로비를 지나 로비 바와 레스토랑으로 가는 통로는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곳은 마요르카 스타일의 인텔이다. 3층 높이의 건물에 객실은 모두 함해박이 42개다. 애초에 조밀하게 객실을 만들어 최대한 많은 손님을 받았다는 욕심과는 거



1



2



3

1 딜럭스룸 2 주니어 스위트 욕실 3 주니어 스위트
1 Deluxe Room 2 Junior Suite Bath 3 Junior Suite

리가 멀다. 그보다 한 명의 손님을 받더라도 가장 편안하고 완벽하게 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건물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계단이나 로비, 복도를 넓찍하게 구성했다는 점이 그 증거다. 일곱 가지로 구분한 객실은 어떤 품이든 아늑하다. 스위트룸이라도 크지 않은 규모의 객실에 나지막한 천장, 널따란 침대, 365일 중 맑은 날이 대부분인 마요르카의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은 로맨틱한 분위기를마저 자아낸다.

고전풍의 건물 안, 복도와 객실 곳곳에는 현대적인 동시대 예술 작품을 두었다. 두 가지 상반되는 특징은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끌어내는데, 복도에 걸려 있는 사진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 건물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건축가 톨로 쿠르사치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리아 호세 카브레는 이런 과거와 현재의 조화로운 통째로 보다 세련되고 매력적인 공간이 되길 바랐다. 뿐만 아니라 마요르카 채석장의 톨과 프랑스 오크 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은 우아한 드레스를 한층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처럼 허전함을 메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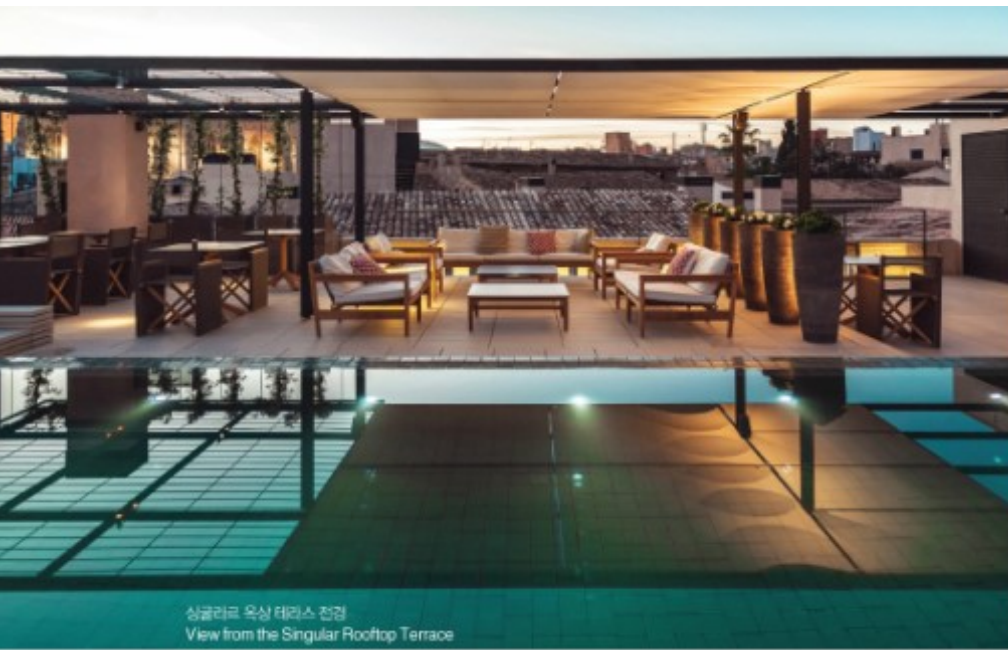
덕분에 안토니오 치테리오, 하이메 아온, 스티븐 버크스, 그르동 기요미에, 파올라 렌디, 로랑 앤드 예르완 부를레크, 파올라 나보네, 필립프 스타르크와 같은 이름난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행운이다.

renovated to its current state. Its name was derived from the nearby church, and the logo's design of interlocking crosses is a nod to history.

In contrast to its exterior, the hotel's interior is more distinctive. Just as most buildings in Europe are characterized by a minimal facade and richly varied interior, the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centers around a square courtyard in the middle. The wide lobby toward the bar and restaurant leads to a Mallorcan-style garden in the courtyard. The three-story building only houses 42 rooms and suites, which is far from the busi-

ness approach of maximizing small rooms to accommodate the maximum number of guests. Instead, the hotel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providing the most comfortable services for each guest. And although the building is small, its stairways, lobby and hallways are spacious.

The guestrooms are divided into seven types. The room in each suite has a low ceiling, comes furnished with a sizeable bed and invites an air of romance with a large window that lets in the Mallorcan sunshine. Amidst the classical decor, the hallways and guestrooms are decorated with contemporary art. This juxtaposition creates a chic and elegant ambiance, and the photographs adorning the hallways give a glimpse into the building's past. Architect Tolo Cursach and interior designer Maria José Cabré hoped to fashion a more elegant space by harmoniz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In addition, Mallorcan quarry stone and French oak were incorporated into the myriad of artworks, like accessories that complete a beautiful dress. As a result, guests can experience the mastery of renowned artists like Antonio Citterio, Jaime Hayon and Stephen Burks.



싱글라르 옥상 테라스 전경
View from the Singular Rooftop Terrace

카탈루냐의 정취와 유적지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현대적인 도시 문명을 동시에 품은 마요르카처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호텔은 마요르카 섬의 달은골이다. 무엇보다 호텔이 아닌 오랜 친구의 집에 머무는 기분이 드는 건 흔히 호텔에서 경험하는 고립된 느낌이 들지 않아서다. 아침이 되면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창문 아래로 보이고, 같은 층의 반대편 복도에도 심심찮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은 미소로 인사를 전하고 스위트룸 객실에 묵는 손님에게는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인 카바를 가져다준다. 물론 마카롱 같은 달콤한 것들도 곁들여서 말이다. 소소한 선물에서 발견하는 맛의 세계는 이곳의 레스토랑으로 이어진다. 총괄 셰프 시몬 페투치니그는 지중해의 신선한 식재료로 마요르카 현지 음식을 선보인다. 여기에 담성 같은 아시아 식문화 요소를 가미해 독특한 그만의 요리를 창조하는데, 결코 단순하지는 않지만 꾸밈없는 음식을 마련한다. 다채로운 칵테일이 있는 로비 바는 보다 중후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를 풍긴다. 바에 들어오는 입구의 네모난 공간은 앞서 언급한 마요르카 풍의 안뜰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흙, 돌이 있는 정원보다 촬영장 스튜디오를 연상시킨다.

스파 시설과 피트니스 센터 등 작지만 여러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는 옥상이다. 선베드와 수영장, 작은 바가 있는 옥상은 어느 시간에 찾아도 그 시간대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왼쪽의 바실리카 데 산트 프란세스크의 투박한 건물과 오른쪽의 뾰족한 산타 예우탈리아 교회의 대조적인 풍경은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호텔 건물이 높지 않아도 황토색 건물들과 푸른 아자수가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밤이 되면 팔마데마요르카는 고대의 도시로 돌아간 듯, 섬에서 유일하게 불이 들어온 유적지들만 보인다. 어쩌서 마요르카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화귀의 성인지,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글라르는 이렇듯 깨닫게 만든다. ■

박보람은 (비문드)의 에디터다.

The convergence of the past and present is a common theme for both the hotel and Mallorca alike. In much the same way, Mallorca embraces the spirit of Catalonia and ancient sites, as well as that of urban civilization.

The absence of isolation inspires the feeling of staying at an old friend's home instead of at a hotel. Every morning, the hotel brims with life and activity by the employees, who can be seen from the windows, and the guests, who can be seen crossing corridors on the other side.

The suites are supplied with sweets like macarons paired with complimentary Spanish sparkling wine, or cava. The world of flavors introduced by these delicacies continues at the hotel's restaurant, Quadrat, where head chef Simon Petutschnig prepares Mallorcan cuisine with a modern flair using fresh Mediterranean ingredients. Combining elements from Asian cuisine to create a culinary style that is unique, the meals are straightforward without being simple. For a cocktail, head to the Lobby Bar, which offers a more formal setting and serves a range of concoctions. The Mallorcan courtyard next to the bar is elegant and looks more like a photography studio than a garden.

Despite its modest size, the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is equipped with spa facilities and a fitness center. However, the most appealing area within the hotel is the rooftop. It comes complete with sunbeds, a swimming pool and a small bar. It is the ideal spot for guests to appreciate breathtaking vistas of the island at any hour of the day. From this vantage point, the historic architecture of the Basilica de Sant Francesc and the Santa Eulalia Church establish an exquisite balance through their juxtaposition. Although the hotel building is not that tall, most buildings in Palma are fairly low and allow for unobstructed views of the cityscape where the surrounding Spanish architecture and green palm trees can be enjoyed. At night, Palma illuminates as its historic sites are lit, as if returning to its medieval roots. All in all, the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is a remarkable reminder of why Mallorca is a place to revisit and is an island of returning guests. ■

Park Boram is an editor for *Beyond*.

BE SURE TO KNOW 이것만은 꼭 알아!

Recommendations

조식으로 스페니시 오믈렛을 맛보자. 스페인 호텔의 조식 메뉴에서 꼭 보게 되는 스페니시 오믈렛은 주재료인 달걀에 피망, 감자, 당근, 베이컨 등을 넣어 파이처럼 두껍게 만든 요리다. 이곳 산트 프란세스크 호텔 싱글라르는 감자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은 오믈렛을 선보이는데, 달콤한 풍미가 있으며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다.

Start your day with a Spanish omelette for breakfast. A staple on the breakfast menu at any Spanish hotel, the Spanish omelette is a thick, almost pie-like dish stuffed with ingredients such as peppers, potatoes, carrots and bacon. The omelette served at Sant Francesc Hotel Singular is made with thick chunks of potato, resulting in a hearty meal that will start your morning off right.

● Rooms 42 (Superior Room, Deluxe Room, Privilege Room, Singular Junior Suite, Sant Francesc Junior Suite, La Torre, Sant Francesc Suite) ● Restaurants and Bars Quadrat Restaurant & Garden, Lobby Bar & Patio
Facilities Singular Rooftop Terrace, Singular Wellbeing spa, gym Address Plaza Sant Francesc 5, 07001 Palma de Mallorca, Islas Baleares, Spain Phone +34 971 495 000 Website www.hotelsantfrancesc.com